

제목: 누X꾼 용어 쓰는 SBS는 시청자들 감정 자극하지 마라...

왜 자꾸 그말 쓰지 말라고 여러번 전화하는데 자꾸 그말을 쓰는지 정말 SBS담당자들은 해명하기 바랍니다. 좋은 얘기할때 쓰지 마세요. 내가 그쪽 전화에다 대고 욕한다고 뭐라하는데 당신들 누X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건 욕 아닌가부터 먼저 반성하세요.

당신들 그렇게 야금야금 약 올리면 내가 언제 날 잡아서 방송국 보도국 찾아가서 완전 목사발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날은 내일이 될수도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아래는 제가 지금까지 인터넷에서 쓴 누X꾼 용어 사용에 대한 반론입니다.

-----'네티즌' 말살어 정책 '누X꾼'

요사이 인터넷 뉴스 업계에서는 새로운 신조어가 생겨났다. TV 뉴스에도 이 얘기가 여러번 나왔다. 다름아닌 '누리꾼'... 장사꾼도 아니고 싸움꾼도 아닌 '누X꾼'. 다분히 저속하고 정략적인 의도가 깔려있는 느낌이다. 국립국어연구원이란 컴맹단체가 선정한 신조어라니 알만한 탄생배경(?)을 가진 단어이기도 하다.

말은 어떤 객체의 기호와 추상성을 대변하고 있어서 한번 형성된 이미지가 특정한 형태로 굳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자연적으로 변화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번 국어연구원의 '누X꾼' 제정은 의도적으로 네티즌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매장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것 같아 씁쓸합니다.

더욱이나 문제는 인터넷 뉴스에서 활동하는 기자들이 이 단어를 요사이 부쩍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네티즌들 중에는 저열하고 난폭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네티즌들을 "꾼"으로 매도하는 것은 정말로 비열한 짓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일은 우리나라 기자연합회가 이 "네티즌"이란 용어를 "누X꾼"으로 쓰자며 천인공노할 시대역행적 "합의"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제가 직접 추궁한 기자에게 확인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정치개혁을 이뤄온 IT의 정론가들을 비하하고 매도하는 행위입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아온 그들의 공로를 잘 알면서도 자기 아들에게도 붙이지 못할 '누X꾼'이란 용어를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 언론계와 국어학계가 심각하게 타락했다는 사실을 의심치 않게 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IT열풍(이런 반네티즌 세력의 저항으로 지금은 잠잠해졌지만)의 신조류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취하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그것이 정략적 의도든 언어학적 의도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국민은 "누X꾼" 이 아닙니다.

국민을 '누X꾼'이라 부르는 언론들은 그 기사를 쓴 '기자' 끝에 '꾼'을 붙여 '기자꾼'이라고 명명해야 합니다. 아님 '알림꾼'이라 명명하든지...네티즌들 중엔 대통령도 있고 법조인도 있고 글썽씨가 뛰어난 논객도 많고 그외 일반적인 국민들도 대다수 있습니다. 이를 한꺼번에 싸잡아 '꾼'으로 매도하는 것은 군중들 스스로의 가치를 폄하하는 행위입니다. 그럼 대통령도 '나라꾼', 판사도 '가름꾼'이라 불러야 할 것입니다. 이런 류의 기사는 절대로 인터넷 매체에 올라와선 안됩니다.

전 '누X꾼'이란 용어가 탄생할 때부터 잘못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누누이 주장했지만 언어는 필요이상으로 의미를 격하시키거나 의도적으로 그 의미를 훼손시켜선 안됩니다. '네티즌'이란 용어의 의미가 자연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리 각인되게끔 해야 하는데 이건 의도적으로 그 어감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받는 것입니다.

'네티즌'이 비록 외래어이긴 하지만 민주적이고 대도시의 커뮤니티같은 뉘앙스가 나는, 나름대로의 함의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말 바꾸기도 좋지만 전보다 다 우리말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용어를 억지로 변용하려 한다면 스스로의 열등감이 빚어낸 자기비하밖에 되질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누X꾼'이란 말의 탄생배경은 들었지만 언어사대주의라서가 아니라 '네티즌'이 좀더 세계적이고 우리나라 인터넷인프라에서 적합한 용어로서 이미 자리잡은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 국민을 '누X꾼'이라 부르는 언론들이 정말 싫습니다. 국민을 '누X꾼'이라 부르는 자가 있다면 저같이 실명을 떳떳하게 밝히고 그렇게 스스로를 불러 주십시오.

<추가>

국민을 누X꾼이라고 불러야 한다면 그럼 국어연구원도 '한글쟁이들'이 모인 '글누리집'이라 불러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에게도 못붙일 이름인 '꾼'이란 용어를 민주적 시대인 국민들에게 감히 붙일 수 있는지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이런 책략적 시도가 횡행되는 미디어 정책에 전 동참하지 않으렵니다. 이것이 '네티즌권력'을 따돌리려는 어떤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미래에 크나큰 댓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 국어연구원에 직접 전화를 했더니 할말이 없는지 나중에는 결국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더군요. 한마디로 어이가 없습니다.

-----

-----UCC? 언론의 교활함...

방금 SBS뉴스에서 UCC에 관한 보도가 흘러나왔다. 국민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어를 버젓이 써가면서 UCC를 만드는 사람들을 "누X꾼"이라고 부르는 뻔뻔함을 서슴지 않는다. 요사이 난 칼럼이나 블로그 시스템이 신뢰를 상실한 것에 대해 속이 많이 상해 있는데 "네티즌"이란 용어를 놔두고 버젓이 "누X꾼"이란 저속어를 쓰는 SBS보도국이 너무나 화가나 방송국에 전화를 했다.

그래서 "네티즌"이란 말쑤한 용어를 놔두고 왜 시청자들이 듣기 거북한 "누X꾼"이란 용어를 왜 자꾸 사용하는지 이전에도 전화했으니 그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상담직원은 내가 다짜고짜로 화를 내니까 이내 전화를 끊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걸어 보도국 직원을 연결해 달라고 했다.

오늘 보도를 보는 핵심 키 포인트는 바로 블로그와 유사한 개인공간서비스를 "UCC"라 부르고 그걸 꾸미는 사람들을 "누X꾼"이라고 불렀다는데 있다. 즉 지극히 미국적인 용어와 지극히 변용된 한국적인 용어를 섞어 사용했다는 것이다. 즉 이들의 불순한 의도를 쉽사리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 용어는 국어연구원이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모든 국민들을 "꾼"으로 폄하하는 매우 잘못된 용어다. 또 그 유포경위와 저의가 매우 의심스러운 "네티즌" 말살어 정책인 것이다. 문제는 이 용어를 언론의 기자들이 담합해 았다투어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일부 미디어정책 담당자들까지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난 내가 접하는 미디어에서 이런 용어를 듣거나 보는 즉시 그쪽에 전화를 걸어 이렇게 얘기한다. 당신네들 보고 SBS(MBC)에서 일하는 혹은 천리안에서 일하는 "알림꾼" "일꾼"이라고 부르면 좋겠는가? 이 정도까지 애길하면 그쪽에서 아무말 못하고 "예, 다시는 그런 용어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뻔뻔스럽게 꼭 토를 단다. 그리고는 자기는 "일꾼"이라고 불러도 좋단다. 이 대목에서 어이가 없어서 웃어버린다.

이런 것들은 그 "알림꾼"들이 입에 발리는듯 사용하는 혀 꼬부라지는 그 "UCC"의 정체인 "네티즌"들을 매도하는 극히 못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알림꾼"들은 정착어인 "네티즌"을 폄하하기에 앞서 먼저 "UCC"란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와 같은 망동을 계속한다면 "네티즌"들에 대한 열등감이 빚어낸 언론폭력(또한 언어폭력이다)밖에 안된다고 본 필자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각설하여, 아까 그 SBS보도국 직원과 연결이 되어 차초지정을 말했더니 그 직원 역시 국어연구원 어찌구 저찌구 하며 또 변명을 늘어놓는다. 하도 기가 막혀서 "야 병 신아, 그 용어 쓰지말라고 했지. 쓰지마! 너도 이렇게 말하니까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그 말 쓰지마." 했다. 그러니까 조금 알아 듣는거 같더라. 참 힘들다. 바보도 아니구 이렇게 애길해야 제대로 알아들을 정도니... 정말로 보도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이정도밖에 안된다니 정말로 실망이다.

<덧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netizen은 net(인터넷)과 citizen(시민)의 합성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칼럼과 블로그라는 외래어가 우리말로 순화돼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티즌"이란 용어만 유독 "누X꾼"이란 말도 안되는 용어의 공격으로 그 의미가 격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라리 netizen이란 어원을 살려 "누리민"이나 "누리인"이란 말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미를 풀이하자면 "인터넷"을 의미하는 "누리"와 "국민"이 합쳐져서 "누리국민"이란 의미도 내포하고 있죠. 제가 생각하기엔 이것이 괜찮을것 같은데...

"누리민"이 이상하면 그냥 안쓰면 됩니다. "칼럼"이나 "블로그" 등과 같이 말쑤한 "네티즌"이란 외래어가 있는데 굳이 우리말로 그 의미를 격하시켜 사용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자꾸 정략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의심받는 것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이 말을 억지로 대체시키려 하기 때문에 제가 싫어하는거죠. 다시한번 말하지만 칼럼이나 블로그, UCC란 말은 그대로 사용하면 유독 네티즌만 우리말로 바꿔 어감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화난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저만 해당이 되는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모든 네티즌들의 명예와도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명예가 뭐 중요한건 아니지만 더욱 화나게 하는건 그들의 정략적 의도가 꽤썩하다는 겁니다. "네티즌"이란 이름의 개인미디어를 "꾼"으로 평가절하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민한 문제인 겁니다.

이것은 기존 언론(방송/신문/인터넷미디어)과 정부미디어(KTV/국정브리핑/청와대브리핑 같은), 그리고 네티즌들로 대변되는 개인미디어 이렇게 3대축의 역학관계로 풀이해야 합니다. 즉 기존 언론과 정부미디어가 네티즌들이 생산하는 개인미디어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낸 합작품이란 얘기죠.

<정동영씨에 대한 덧글>

빨갱이 그런 말은 이제 좀 자중하셔도 될듯 합니다. 제가 정동영에 대해 한말씀 올리자면 예전에 그사람 홈페이지엘 가본적이 있는데 거기서 "네티즌"더러 뻔뻔스럽게 "누X꾼"이라고 부르고 있더군요. 그 소릴 듣고 전 이 사람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국민들더러 누X꾼이라 부르는 언론인 출신이 어떻게 대통령 될 자격이 있었습니까? 그도 우리 네티즌들 편이 아닌 거지요. 그도 그런 말을 쓰는걸 보면 오히려 언론인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언론인들 중에 지각과 양심이 있는 분들도 많지만 이렇게 우리 국민들, 특히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네티즌들을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는걸 보면 일부 믿기 어려운 존재들도 많이 포진해 있는게 분명합니다. 이젠 제발 그런 언어도단은 중지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먹히지 않는다면 이건 완전히 네티즌들과 연대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로밖에 해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누X꾼이라고 자처하고 떠들고 다닌다면은 할 말은 없지만 전 그런 사람들하고는 절대 연대하지도 않고 상대하지도 않을 생각입니다. 이건 정체성과 이념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비록 기성세대의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전 네티즌과 연대해 끝까지 그 이념을 지켜내겠습니다. 최소한 네티즌이란 순수한 참여정치를 말살하고 비하하려는 누X꾼 세력의 부당함을 지적하는데 저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펌] EBS토론카페 진행자 누X꾼 사용...

오늘 진행자가 "네티즌" 대신 사용했던 "누X꾼" 용어 듣기에 거북합니다. 사용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청자들이 진행자님보고 "진행꾼"이라고 부르면 기분 좋겠습니까? 이 내용은 제가 이전에도 EBS에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니 악성덧글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런 토론회나 언론에서 비치는 누X꾼 사용도 일종의 언어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자꾸 시청자들이 듣기 거북한 누X꾼이란 용어를 사용하는지 그 저의가 무척 궁금하군요. 우리 순리대로 살아갑시다. 역수로 나아가면 무슨 일이트 알력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국민들은 누X꾼이 아니라 "네티즌"이란 사실, 억지로 쓴다고 그게 변한진 않는다는 사실, 그 사실을 명심하세요. 오늘은 좋은 말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자꾸 그 말 쓰면 방송국에 언제 직접 전화드리든지 찾아가겠습니다. 그때 욕한다고 뭐라하지 마십시오.

언어폭력은 폭력으로 다스려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덧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netizen은 net(인터넷)과 citizen(시민)의 합성어 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칼럼과 블로그라는 외래어가 우리말로 순화돼 사용되고 있는 실정에서 "네티즌"이란 용어만 유독 "누X꾼"이란 저속한 느낌의 용어로 변용되면서 그 의미가 격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라리 netizen이란 어원을 살려 "누리민"이나 "누리인"이란 말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미를 풀이하자면 "인터넷"을 의미하는 "누리"와 "국민"이 합쳐져서 "누리국민"이란 의미도 내포하고 있죠. "누리민"이 이상하면 그냥 안쓰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칼럼"이나 "블로그" "UCC" 등과 같은 외래어는 변용없이 그대로 사용하면서 "네티즌"이란 외래어만 굳이 우리말로 그 의미를 격하시켜 사용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자꾸 정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받는 것입니다.

즉 "누X꾼"이란 말은 "네티즌"이란 개인미디어를 견제하기 위해 생겨난 용어입니다. 그래서 유독 기성언론의 기자들이 앞다투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그러니까 더욱 화가 난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말로 정착돼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놔두고 억지로 "꾼"을 붙여 사용한다면 그게 올바른 언어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